

【에세이】

바누아투 선교이야기

- 선교, 기다림 -

정 창 직*

“영원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바누아투는 망망대해의 남태평양에 80여개의 섬들이 작은 점처럼 흩뿌려진 섬나라이다. 우리나라처럼 호적 제도나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에 정부에서는 인구 조사(census)를 위하여 밀림에 사는 부족에 인구조사원을 보내어 부족의 숫자를 파악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인구를 파악할 수 없기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고 대략 30여만(2020년)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조상들이 언제, 어디에서 왔고 폐쇄된 작은 섬들에 어떻게 무려 115개의 각자 다른 언어를 가진 부족들이 형성되어 살게 되었는지 가늠해 볼 만한 기록이나 유적이 없으니 유전자 분석으로써 그 인종의 기원을 추정하고, 작은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여 그곳에 왔을 그 조상들의 이동 경로는 바람과 해류의 흐름을 통하여 짐작해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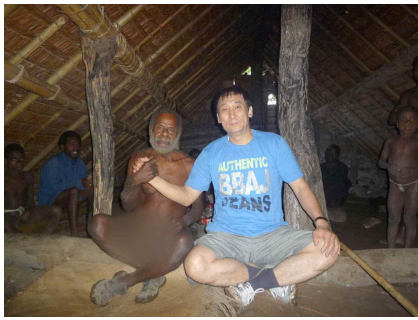
이곳은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과 싸운 미군의 중간기지이기도 했다. 지금도 밀림에 가면 당시에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나 포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전쟁이 끝나 미군이 퇴각하며 수장시켰던 군함은 물고기들의 천국이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지가 되어 있다.

바누아투의 밀림에는 신구(新舊)가 공존한다. 까만 피부에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그들의 목에 스마트폰이 걸려있는가 하면 지금도 거짓말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령숭배(Animism)를 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며 사는 부족들이 있다.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영상으로 보는 바누아투는 야자수 나무와 질푸른 밀림의 숲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낙원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화면으로 보는 정경일 뿐 현지에서 느끼는 실제의 삶은 종일토록 더위와 틈만 나면 달려드는 모기에 시달리고 섬나라 특유의 칙칙한 염기 가득한 습기 때문에 벌레와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리다가 때로는 며칠씩 쉼 없이 내리는 비와 해마다 서너 차례씩 불어오는 사이클론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파송선교사이다. 2002년부터 20년째 바누아트 미전도부족선교와 무교회 지역 선교를 하고 있고, South Pacific Tribes Mission Director(남태평양부족선교회 디렉터)로서 사역하고 있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오순절 날 이 섬에 도착했다고 해서 펜티코스트 아일랜드(Pentecost Island)라고 불리는 작은 섬의 남동쪽에 자리 잡은 분랍(Bunlap) 부시 부족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2011년 9월이었다.



분랍부시족 추장 Bencurd

이 부족은 호주의 백인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천둥, 번개, 지진, 사이클론도 불러올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super natural power)을 가졌다는 주장 Bencurd(뱅크드)의 리더십 아래 자신들의 전통(custom)을 고수하며 복음을 거부해온 폐쇄적인 부족이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800여 명이

12개 village(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다.

대부분 가옥은 나무 이파리를 말려 엮어 지붕을 만들고 그 지붕을 땅에 닿는 지점까지 내려지어서 ‘사이클론’의 회오리치는 바람에 잘 견디기 위해 지은 전통 가옥(Natangura House)이지만 가끔 양철로 지붕을 만든 집이 마을마다 한 두 채씩은 있다. 바누아투 국기에 구부러진 돼지 앞니가 그려질 정도로 바누아투는 돼지와 아주 밀접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과거에는 돼지 앞니가 화폐로 사용되었고 전통 의식(Ceremony)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돼지를 잡아서 온 부족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화장실이 없는 분랍부족에서 돼지들은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며 부족원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고마운 존재이다.



나까말(community hall 안에서의 잠자리)

바누아투 부시 부족은 외부 손님에 대해 아주 친절하고 관대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데 이 부족은 그렇지 않았다.

바누아투 밀림에서 이동할 때에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마치 군대에서 침투훈련을 할 때 건빵으로 며칠을 견디듯 밀림에서는 딱딱하게 구운 사각형 비스킷이 비상식량이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일정 때문에 비스킷으로 끼니를 때워 배가 매우 고프지만, 음식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언제나 먹을 것을 주나 기다렸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약간의 타로(원주민들의 주식)를 주어서 허기를 때웠다. 잠자리는 나까말(회당: 회의하거나 밤에 모여서 담소하고 카바를 마시는 community hall과 같은 장소)에서 마른 나뭇잎으로 짠 매트를 하나 주면서 거기서 자라고 했다.

부족원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카바를 마시며 담소하고 나는 그 옆 땅바닥 매트 위에 누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버려두시렵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흘리게 하시는 보배같이 귀한 눈물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의 전통(custom)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정령숭배와 문맹은 그 부족을 무지와 혼돈과 불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강박한 대로 강박한 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조선 땅에 첫발을 뚫은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말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잠을 청하는데 웅얼거리는 듯한 부족원들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려왔다. “가라테, 가라테”.....

눈을 슬며시 떠서 보니 부족원 중의 한 명이 주먹과 발을 지르며 싸우는 흥내를 내면서 흥이 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의 말을 재미있게 듣고 있었다. 아마도 저 아랫마을에 가서 무술영화 비디오를 보고 와서 영화 속의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현지인 사역자 윈스턴에게 통역을 부탁하며 “여러분 태권도라고 들어보았습니까?” 물었고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가라테는 일본인들이 수련하는 무술이고 한국인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태권도 4단, 국제 사범 자격증, 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있노라고 설명했더니 그들은 기이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며 신기해했다. 그중에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한 젊은이가 태권도와 가라테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당연히 태권도가 가라테 보다 더 강하다고 했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동양인 무술 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태권도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그렇게 분랍 부시 부족에서의 첫날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원주민 사역자와 함께 부족원들 모르게 새벽기도를 하고 그들이 밤에 모닥불을 피우며 의식을 행하는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땅

을 밟고 있을 때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젊은이가 나에게 다가와 혹시 어제 이야기했던 그 태권도를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내가 태권도 수련을 멈춘 지 30년이 지났지만 내가 보여달라고 하니 특별히 보여주겠다. 그러니 모든 부족원들을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라”고 했다.

부족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태권도의 정신을 설명한 후 수련에 앞서 준비운동(스트레칭)을 하는데, 수련을 멈춘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 잊힌 줄 알았지만, 나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밀림에서 누군가가 당신들을 공격해 올 때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며 상대방이 부시 나이프나 몽둥이로 공격할 때에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것인가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돌려차기(turning kick)를 보여주니 밀림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나에게 다가와 태권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그 젊은이의 이름은 Bebe(베베)이고 추장 Telkon(텔콘)의 아들이었다. 내가 시범을 보여준 후에 베베는 나를 papa(빠빠)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고 나는 분랍 부시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다. 베베는 그 후로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조상 대대로 서양 선교사들에게 문을 뚫고 닫았던 이들이 동양의 한국 선교사에게 한순간에 그들의 경계를 풀어버렸으니 주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성령께서 감독하신 분랍 부족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태권도 시범

선교의 현장에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몸이 약하여 건강을 위해 수련했다가 군 복무 시 사단 대표선수와 태권도 교관을 하고 전역 후에는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며 젊은 한때에 깊이 몰두했던 태권도, 그러나 목회를 시작한 후로부터 태권도 수련한 것을 때때로 후회했다. 사랑과 온유의 모습이 보여야 할 목사의 몸과 정신에 깊이 베여있는 무도인의 강직함은 종종 원치

않는 오해를 가져올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서 애증이 교차하는 태권도가 복음의 불모지를 뚫고 들어가는 접촉점이 되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나의 후회는 한순간에 보상받은 셈이다.

막연한 질문 같지만 누군가가 “선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지체하지 않고 “선교는 기다림이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선교는 우리의 사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분랍 부족을 알면 알수록 그들의 전통(custom)은 생각보다 강했다. 밀림 안은 그들만의 왕국이다. 대추장(Paramount chief) 아래에 여러 명의 추장이 있다. 대부분의 바누아투 부시 부족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존경받고 지도력이 있는 부족원 중의 한 사람을 추장으로 선출하지만, 이 부족의 대추장은 세습제이다. 세습제라는 것은 그만큼 추장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장 뱅커드(Bancurd)는 천둥, 지진, 번개, 쓰나미까지 만들어내는 초능력자라고 부족원들을 속이고 있으니 그의 말은 법과 같았다. 지금도 바누아투 밀림에는 종종 블랙매직(바누아투 밀림에서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흑마법과 같은 의식으로 종종 심장이 몸 밖으로 나와서 사체가 발견됨)이 행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웃 부족의 추장이 Bancurd가 블랙 매직으로 5명을 죽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나에게 슬며시 귀띔해 줄 정도로 분랍 부족은 무지하고 강한 부족이다.

또한, 다양한 율법이 존재하고 부족 내에는 법정(custom court)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법정에 서야 한다. 만약 내가 그 부족의 법을 어긴다면 나도 부족 법정에 서야 하니 추장의 말을 잘 들으라고 아들 베베(Bebe)가 말해 주었다.

남자아이들은 3살이 되면 할례의식을 행해야 하고 7살~10살 사이에 치러지는 성인식인 낭골(Nangol, land diving)은 막 대기를 연결하여 높이 25m의 탑을 세우고 단계별로 점프대를 설치하여 각자가 가능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의식으로써 Yam, 타로와 함께 바누아투인들의 주식 중 하나)의 풍작과 부족의 왕성한 번식을 기원하고 그들의 용맹성을 자랑하는 의식이다. 오늘날 번지 점프는 바로 이 Nangol(land diving)에서 유래 되었다.



분랍부족의 성인식인 Nangol
(번지점프의 기원)

회당(communitiy hall)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까말(Nakamal) 안은 3단계로 나누



부족 경내를 벗어난 돼지는
칼로 다리를 잘라버림

어저 있으며 신분에 따라서 불을 피우는 장소가 달라지며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나까말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외에도 성인들은 나같은 백인들이 요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어린이와 여자들은 먹을 수 있다. 또한, 백인들은 그들의 경내에서 사진도 찍을 수가 없는데 오직 나에게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가 경내를 벗어나면 부시 나

이프로 돼지의 다리를 쳐서 죽여버린다. 어느 날 돼지 뒷다리가 잘려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돼지를 가지고 왔는데 경내를 벗어나서 다리를 잘라버렸단다. 사람이 죽으면 신분에 따라서 돼지를 잡고 돼지 한 마리에 사다리 한 칸을 만들어 나말레 리프를 걸어 죽은 사람의 신분에 존경을 표시하는데 베베(Bebe)의 아버지 Telkon 추장이 죽었을 때 사다리의 칸수는 36칸이었다. 36마리의 돼지를 잡아서 의식을 행한 것이다.

분랍 부족을 수시로 드나들며 구급약과 침과 부황을 가지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친밀감을 쌓았다.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만 좀처럼 잡지 못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제시했었다면 분랍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장이 조치했을 것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정령숭배와 추장의 교활함과 사기(자기가 초능력자라고 속임)와 무지에 빠진 저들,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비교도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일차적 관심밖에 없는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이 무지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행복지수 1위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행복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행복은 복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만난 지 3년이 훌쩍 지나갔고 나와 서광순 선교사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다. 3년 동안 복음을 제시조차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족에 딱 차 있는 이 미신과 무지를 어떻게 깨뜨린단 말인가? 설사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도 정령승배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한 혼



서광순 선교사

합종교가 되어서 남미의 가톨릭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느껴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힐 가능성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선교사의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선교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의 진보는 멈추게 된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가장 큰 선교의 방해물은 바로 선교사 자신이며 선교사에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성 관리이다. 나는 이러한 내면적인 갈등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마지막 방문을 준비했다. “주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아내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번 방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아침 일찍 부족 마을로 가기 위해 트럭에 올라탔다. 분랍 부족에서 첫 밤을 보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마치게 되다니! 착잡한 마음으로 트럭에 몸을 맡기고 가는데 갑자기 내 안의 저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일어나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굽 시켜라”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뚜렷하게 깨달아진다.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깨닫게 된다. 주님께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족의 소년들을 부족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학교를 보내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임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다. 문맹률 99%인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맹을 깨뜨림과 동시에 복음도 함께 전하며 자기 부족을 깨울 자부족 사역자를 양성하라는 주님의 응답이었다.

분랍 부족에 첫발을 디딘 후 7년 만에 겨우 11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하고 복 받은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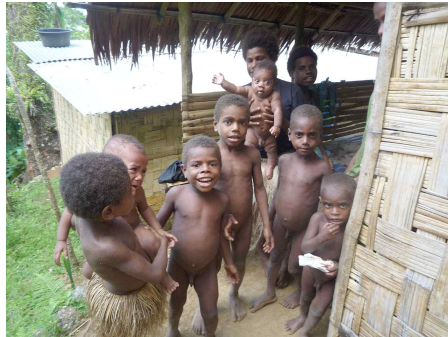
이쯤 되면 “선교는 기다림이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여행할 때 아무리 바빠도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안개 때문에 연착되어 늦어지면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취소되면 다음 비행기가 뜰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다림도 선교라는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일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다림도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다.

오랜 발효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한 장맛이 나듯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진한 복음의 향취가 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와 교회의 사역들이 잠시 멈추어 선 것 같지만 “가다림의 미학”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은혜이다. 지금까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그 무엇이 있었던가?



분랍부시부족 어린이들



분랍부시 부족원